

청소년필독교양도서

김수

명수필선집

김엽, 최리화 편



연변인민출판사

청소년필독교양도서

조선명수필선집

김엽, 최리화 편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최리화

책임교정: 최순란

.....
图书在版编目(CIP)数据
.....

朝鲜名随笔选/ 金叶, 崔梨花编.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6. 9

ISBN 7-80698-777-0

I. 朝... II. ①金...②崔...III. 随笔—作品集—朝鲜—现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I312.565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6)第115636号
.....

朝鲜名随笔选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印刷: 图们市书文彩色印刷有限责任公司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50×1168 1/32 印张: 7.25 字数: 110 千字

标准书号: ISBN 7-80698-777-0 / I · 115 (民文)

版次: 2006年9月第1版

2006年9月第1次印刷

印数: 1-1000册

定价: 19.80元

如发现印装质量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머리글

근년에 와서 우리 조선족문단에는 문학장르의 하나인 수필이 다소 이채를 띠고있다. 한편 기타 장르의 시, 소설에 비하면 수필문학은 여전히 문단적으로 그 저자대오가 분산되고 창작활동이 활발하지 못하며 불균등한 형편이다. 게다가 수필에 대한 애독자들의 관심을 감안할 때 우리 서재에 세계적으로나 나라적으로 명목을 띤 그럴듯한 수필선집이 채겨져있지 못한것은 실로 아쉬운 일이 아닐수 없다.

이에 우리는 시대적사명감으로부터 출발하여 동방수필의 정체성과 현대수필의 특징을 보여줄수 있는 조선명수필선집을 묶었다. 이 선집에 수록된 22편의 문장은 《조선문학》잡지가 출간된 초창기인 1949년부터 장장 50년을 걸친 1997년까지 본 잡지에 실린 근 천편에 달하는 예술산문가운데서 정선했다.

우리는 모쪼록 이 선집이 좋은 수필을 찾는 독



자들에게 성실한 안내자가 될수 있기를 기원하는바
이다. 우리는 또 이 선집이 한창 성장기에 처한 광
범한 청소년들에게 훌륭한 사상과 리념을 키울수
있는 덧거름과 촉매물이 되기를 바라마지않는다.

편자로부터



2

조선명수필선집

차 례

- 1/ 산촌의 랑만
- 11/ 고향 송정
- 23/ 들에 대한 생각
- 34/ 새봄이 드는 전야
- 44/ 애착
- 53/ 떠창을 두고
- 58/ 땅의 향취
- 64/ 애국립을 바라보며
- 73/ 우산
- 82/ 생활의 원근법
- 92/ 조국의 주인
- 104/ 동명왕릉에서
- 108/ 황진이의 무덤을 찾아서
- 127/ 고구려의 옛 산성에 올라
- 137/ 잠들수 없는 밤
- 146/ 카프시대의 회상기
- 170/ 김소월을 생각하면서
- 184/ 영원히 살아있을 체호브
- 191/ 동백꽃
- 198/ 철새
- 205/ 나루터에서
- 215/ 봄비 내리던 날

- 리병수
- 리 범
- 리명호
- 송창일
- 김룡성
- 김석주
- 리형순
- 류동호
- 장수근
- 리창록
- 최명익
- 박창민
- 리 연
- 리영준
- 윤경주
- 리기영
- 박팔양
- 김영석
- 김룡성
- 리극로
- 현룡균
- 류도희



산촌의 랑만

리병수

집의 안사람이 친정나들이를 떠난후 며칠 때식을 끓여보니 부엌에서 바가지가 노는 역할이 실로 대단하다는것을 느꼈다.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흔하고 또 그렇기때문에 거의 관심밖에 있는 이 사실을 내가 새삼스럽게 이야기하게 되는것은 가마를 씻고 쌀을 일고 그릇을 부시고 또 목이 마를 때는 손쉽게 물을 마시는데도 없어서는 안될 그 바가지가 우리 고향에서는 되지 않는다는 바로 그때문인것이다.

글을 쓰는이들치고 해방전 일제통치의 암담한 시기 살길을 찾아 삼수갑산으로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쓸 때 그들의 집에 바가지가 달리지 않았다고 쓰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다. 지금에 와서 이것



은 완전히 상식이 되고말았으나 귀밀감자 그밖의 농사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불모의 땅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이야기한것은 움직일수 없는 진실이었다.

내가 아직 철이 들기전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는 벌방에서 살길을 잃고 삼수-갑산으로 찾아갈 때 제 발로 바가지를 깨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사연이 있었다는것을 몇번이고 말하던 생각이 난다. 그때 나는 겨우 두이 넘었다고 한다. 어머니는 거치장스런 집에 바가지를 매달아 이고 단풍선렬차에 올랐다. 그러자 일본인차장이 다가와서 짐이 크니 당장 내리라고 야단을 치는데 렬차는 금시 떠나게 되고...어머니는 사정도 하고 울며불며 엄살도 부렸으나 기어코 내리라는것이였다. 악이 난 어머니는 집에 매달려있는 바가지를 바작바작 밟아서 그 쪼박들을 집에 싸고 대들었다.

《이래도 짐이 크오? 예? 이래도 내리라고?》

이통에 차장은 뒤걸음질을 치며

《됐다! 무게는 그대로나 용적이 줄었으니까!》

하며 그 자리를 뺐다는것이였다.

보잘것없는 살림을 편 어설픈 나의 유년시절은



종일 가야 새소리와 물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그러한 벽천에서 흘러갔다.

사람됨이 걸걸한 어머니는 명절날이면 많은 이웃녀인들을 불러왔다. 그때면 나는 의례 앞집으로 바가지를 빌리러 심부름을 간다. 내가 숨을 헐떡거리며 바가지를 가져오면 이미 구들에는 큼직한 함지에 물을 가득 부어놓고있는 때다. 그 함지에다 바가지를 얹어놓고 저가락에 쥔 감자로 툭툭 두드리면 얼마나 구성진 북소리가 나는것이더냐?

녀인들은 바가지북장단에 맞추어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었다. 웃음도 기쁨도 없는 생활에 모처럼 벌려놓은 놀음터에서 그들은 자기의 재간을 다 벌려놓기도 했다.

구슬픈 노래도 불렀다. 쓰디쓴 생활에 항거하는 춤판의 어느 한 토막에 들려오는 그 노래를 녀인들은 방금전까지 그토록 흥겹게 춤을 추던 사람답지 않게 마음을 포근히 가라앉히고 귀를 기울이곤 했다.

시집간지 몇해인가
손꼽아보라네



고향 떠나 이 몸은
어디로 왔노
바람 불면 끝없이
설레이는 마음...

베저고리에 감장물을 들인 광목치마를 입은 어머니와 동년배였던 여인이 불렀던 노래로 기억된다. 그가 이 노래를 부를 때도 바가지북은 여전히 그 은은한 소리로 어린 나의 가슴속을 쿵쿵 울려주었다.

그러나 내가 굳이 바가지를 두고 몇마디 하자는것은 부엌일을 해왔다고 해서, 소년시절의 유일한 구경거리였던 바가지북장단에 맞추어 춤춘 명북 땅녀인들의 기질을 이야기하려는것은 아니다.

친정나들이를 떠난 안사람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어느날 리영일이란 한 농산기수가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그는 바가지를 주렁주렁 꿰맨 노끈을 손에 감아쥐고 나타났는데 나의 먼 조카벌되는 사람이다. 처음에 나는 벌방지대 어느 친척집을 다녀오는 길인줄 알았다.

〈이걸 뒤개 써보십시오.〉



〈어디서? 북청형님네 집에서 오는 길이나?〉

〈아저씨두 원…내가 심은겁니다.〉

〈심다니?…〉

〈자연이란 정복 못할 요새는 아니더군요.〉 하고 영일이는 허죽이 웃기까지 했다.

더 캐묻지 않아도 해발 천메터가 가까운 자기네 고장에서 연구해낸것임을 알수 있었다. 나는 그 바가지를 이모저모 뜯어보며 많은것을 생각했다. 살이 좀 얇을뿐 당이 길러낸 새 농산기술세대의 지혜와 령북땅이 만들어낸 바가지는 아무데도 손색이 없었다.

나는 영일이가 바가지뿐만아니라 자기네 농장 실정에 맞는 밀종자를 구해다가 심어서 성공한것도, 지금은 옥수수도 심고 남새도 자체로 심어서 수요를 충당할뿐만아니라 도시에 공급한다는것도 알고있다.

더구나 놀라운것은 남새농사를 령북지방의 그 혹독한 추위가 울부짖는 겨울에도 한다는것을 알고있다. 덩실한 온실을 지어놓고 바닥에 두툼게 거름을 까니 거기서 뜨거운 열이 발산되어 불도 때지 않고(때로는 너무 열이 올라서 찬 공기를 넣지 않으



면 안된다.) 겨울에 남새농사를 짓는것이다. 령하 20도를 오르내리는 어느 추운 날 영일네 집으로 갔더니 싱싱한 시금치채대접을 받은것도 다름아닌 그 온실덕분인것이다. 오늘 영일이 가져온 바가지도 그 온실에다 일찌감치 모를 부어 진달래가 피는무렵에 밖에 옮겨심어서 이렇게 자라 굳힌것이 틀림없다.

증흥리라면 해발이 1200메터요, 백두산이 지척인듯 바라보이는 곳이다. 여기 가슴이 트이도록 펼쳐진 대지에는 벌써 오래전부터 종합적기계화가 이루어져서 씨불임으로부터 김매기, 가을거두기에 이르기까지 다 기계가 하고있다.

뜨락또르가 밭가운데에 있는 무수한 이깔나무 둥굴들을 별로 힘을 들이지 않고 그야말로 모래불에서 무를 뽑듯할 때 영일의 아버지는 환성을 올렸다.

〈야아! 그 놈이...그 놈이 말이 화전민의 뿌리를 모조리 뽑아치우는구나!〉

실로 모조리 뽑아버렸다. 흔적없이 뽑아버렸다. 귀틀집도 없애버렸고 내가에 걸어놓은 궁치방아도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 모든 낡은것의 폐허



우에서 이곳 농장원들은 밀이며 옥수수며를 길렀고
겨울에도 남새가 자라게 했고 바가지까지 주렁주렁
달리게 한것이다.

풍산땅 허화령을 넘어서면 지경천이 동남을 향
하여 맑게 흐르고있다. 지난해 늦은여름에 지경천
을 따라 약 보름동안을 두루 다녀보았는데 이 이름
없는 두메오지의 변혁이야말로 나를 놀라게 했고
화전민의 뿌리를 뽑아버린 경북땅이 바로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있는가를 웅변적으로 말해주고있
었다.

채양버들이 그 풍만하고 무성한 가지를 펼치고
매곡이 들어선 개울 건너의 산비탈에는 말쑥한 흰
벽에 붉은 지붕을 쓴 기와집들이 처마와 처마를 잇
닿이고 줄느런히 늘어섰다. 뒤산에서는 양들이 풀
을 뜯고 채양버들의 한가로운 그늘밑에서는 정오의
별을 피한 암소가 누워서 새김질을 하고 제 장난에
취했던 나머지 어머니로부터 멀리 떨어진 송아지가
《음매-》하고 운다. 마을 맞은편 비탈에서는 곡식
들이 누렇게 익어간다. 실로 이 땅의 음향에 귀를
기울이고 눈에 뜨이는 모든것을 깊은 생각을 갖고
음미하느라면 리상향이 예 아닌가싶다.



나는 여기 제1세포위원장동무가 벼재배시험을 한다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잘 믿어지지 않았다. 해발 1100메터나 되는 곳이 아닌가?

그러나 그다음 그의 시험포를 가보고 입을 딱 벌렸다. 약 200평의 시험포에는 여러문종되는 벼가 있는데 그중 대여섯종은 호함진 이삭이 머리를 숙이고 건물건들 불어오는 바람에 우줄우줄 춤을 추고있었다. 몸뚱이색갈이 빨간 잠자리까지 날아와서 흐느적이는 벼이삭에 앉으려고 그 이삭의 툄동과 함께 어리광부리듯 오르내리고있었다.

모든것이 제법이였다. 귀밀이나 감자 농사에 만족 못해서 밀, 옥수수 재배를 일반화한 이 땅은 또다시 한단계 더 높은것을 지향하여 나가고있지 않는가? 물론 벼시험재배를 하는 그들에게 애로가 없었던것은 아니였다. 논에 물을 대는 때도 그 물을 뜨뜻이 덥혀야 한다. 그러나 그것도 물주머니를 투명제염화비닐박판으로 덮어주니 모든것이 제법이였다. 로동계급이 자기가 만들어낸 최신과학성과의 모든것을 갖고 농촌을 지원하는 한 농민들 역시 못해낼 일은 없는것이다.

이 얼마전에 지경천쪽에서 오는 사람편으로 기



별이 왔는데 그 시험포에서는 정당 2.5톤의 벼가 수확됐고 명년에는 피나 심던 진펄을 논으로 풀어서 대대적으로 벼농사를 하겠다는것이다. 산골에서 장작을 때며 제고장에서 난 쌀밥을 먹는 때가 왔다. 그리고 오늘 농촌사람들은 바가지북장단에나 맞추어서 노래 부르고 춤을 추는것이 아니라 마을마다에 갖추어놓은 갖가지 악기들을 다루며 오늘의 행복을 노래하고있는것이다...

나들이를 떠났던 안사람은 예견했던것보다 일찍 돌아왔다. 그 사람은 언제나 그러하듯이 금년도도 친정에 가서 여러개의 바가지를 가지고 왔다. 벌방에 사는 장모는 우리를 잊지 않고 해마다 바가지를 보내준다. 안해는 영일이가 가져온 바가지를 보고 그간 때를 꿰이는것도 그런데 뭐 사내답지 않게 이런것을 사들고 다니느냐고 나를 나무란다.

《홍? 친정집 마을만 바가지농사가 되는줄 아는 모양이지?》

나는 이렇게 핀잔을 주며 그 바가지의 래력을 이야기했다.

안해는 친정에서 가져온 바가지로가 아니라 영일이가 보낸것으로 물을 푸고 쌀을 씻고 일며 모든



부엌일을 제각제각 해치우며 저녁밥을 짓는다. 옷
방에 앉아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는 혼자 속
으로 생각했다.

(역시 바가지를 놀리는 솜씨가 서투른 나와는
질적으로 다르군! 얼마나 깊은 사연이 담긴 바가지
를 저 사람은 저렇게도 능숙하게 다룰가?...)

(1966년 2월호)



고향 송정

리 범

오랜만에 찾은 고향이어서 마음이 앞선다. 땀스에서 내려 10리어간을 어떻게 달음쳐올랐는지 반소매저고리에까지 땀이 내배였다.

그 새나무그늘에 들어가 땀이나 들인후 올라가고싶었지만 고향에 계시는 늙으신 아버지 어머니며 친지들이 눈앞에 사물거려 잠시동안에도 지체할 생각이 없었다.

이리하여 나는 다시 걸음을 재촉하였다. 송지굽이를 돌아서서야 고향의 일각이 바라보였다. 처음에는 미골봉꼭대기의 철주탑이 보였고 다음으로 원주골 복숭아밭이 보였다. 그다음 한참 더 올라가노라니 고향 송정이 바라보였다. 언제 보아도 기백이 싱싱한 송정이다. 고향어구에 그렇듯 우렷

